

황금장갑 4명...두산왕조의 품격

니퍼트·양의지·김재호·김재환...9년만에 구단 최다타이

〈투수〉 〈포수〉 〈유격수〉 〈외야수〉



2016 KBO리그 황금장갑의 주인공. SK 최정(3루수), 한화 김태균(1루수), KIA 김주찬(외야수), KIA 최형우(외야수), 두산 김재환(외야수), 두산 김재호(유격수), 두산 양의지(포수), 넥센 서건창(2루수·뒷줄 왼쪽에서 3번째부터 시계방향)이 13일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황금장갑 트로피를 들고 함께 웃었다. 투수와 1루수 수상자인 두산 더스틴 니퍼트와 전 NC 에릭 테임즈는 대리수상자가 상을 받았다. 김진환 기자 | kwangshin00@donga.com

2016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

생애 첫 수상 김재환 “함께 받아 더 뿌듯”
3년연속 영광 양의지 “판타스틱4 고마워”



장갑 4개를 배출하며 2016시즌을 화려하게 마감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두산이 4명의 골든글러브를 배출했

다. 2년 연속 한국시리즈(KS) 우승, 창단 첫 통합우승에 빛나는 두산은 KS 준우승을 차지한 2007년(투수 다니엘 리오스·2루수 고영민·3루수 김동주·외야수 이종욱)에 이어 9년 만에 구단 역대 최다 타이인 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KS 우승을 차지했던 1995년(OB)과 2001년에도 두산의 황금장갑 주인공은 4명이었다.

가장 먼저 발표된 외야수 부문에선 올 시즌 홈런(37개)·타점(124개)·장타율(0.628) 3위에 오르며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현수(볼티모어)의 자리를 훌륭히 매운 김재환이 생애 첫 골든글러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재환은 유효표 345표 중 202표를 획득해 KIA 최형우(311표)에 이어 외야수 부문 차점자에 올랐다. 3위는 KIA 김주찬(100표)이었다.

주장 김재호는 198표를 획득해 여유 있는 표차로 2년 연속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

상했다. 유격수 후보 중 가장 안정적인 수비(수비율 0.984)를 선보였고, 타율(0.310)도 가장 높았다.

포수 양의지는 312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3년 연속 황금장갑을 꼈다. 투수 부문에선 니퍼트가 올해 최다득표인 314표로 2위인 KIA 헥터 노에시(15표)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처음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득표율은 91.0%. 니퍼트는 다승(22승)·방어율(2.95)·승률(0.880) 3관왕으로 KBO 리그 MVP(최우수선수)에 이어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했다.

한 팀에서 투·포수가 함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건 2009년 KIA 아킬리노 로페즈·김상훈 이후 7년 만이자 역대 10번째다. 니퍼트와 양의지는 앞서 수상한 1985년과 1987년 삼성 김시진·이만수, 1988년과 1991년 해태 선동열·장재근, 1995년 LG 이상훈·김동수, 1998년

현대 정민태·박경완, 2000년 현대 임선동·박경완, 2003년 현대 정민태·김동수 등 당대 최고의 배터리와 여계를 나란히 했다.

김재호는 “많은 동료선수들이 함께 받아 더 뿌듯하다.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받았기에 상을 함께 받은 기분이다. 두산이라는 팀을 대신해 우리가 대표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양의지는 “사실 나는 한 게 없다. 감독 코치 선수들을 모두 잘 만났다. 시상식 무대에선 말하지 못했는데 판타스틱4에게 특히 감사하다. 이들이 잘했기에 내가 골든글러브를 또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은 한국시리즈 우승 세리머니로 ‘골든포토상’까지 수상했다. ‘아이언맨’ 마스크를 쓰고 중심에 섰던 유희관은 다시 한 번 김재환·김재호·양의지·오재일과 함께 세리머니를 재현했다.

▶관련기사 2면

이명호 기자 nirvana@donga.com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3일(한국시간) 축구전문매체 프랑스풋볼이 주관하는 2016 발롱도르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은 2014년 시상식에 참석해 트로피를 들어 보이는 호날두의 모습. 그는 현재 FIFA 클럽월드컵 참가를 위해 일본에 머물고 있다. AP뉴시스

호날두, 메시를 이겼다

챔스리그·유로 2016 우승 공로
개인통산 4번째 발롱도르 수상

포르투갈의 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1·레알 마드리드)가 개인통산 4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2016년을 자신의 해로 마무리했다.

호날두는 최대 라이벌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를 따돌리고 축구전문매체 프랑스풋볼이 13일(한국시간) 발표한 발롱도르의 주인이 됐다. 기자단 투표에서 총 1583점 중 745점을 받아 메시(319점)를 여유 있게 제쳤다. 또 2008년, 2013년, 2014년에 이어 4번째로 발롱도르를 품에 안아 역대 최다수상 2위에 올랐다. 역대 최다수상자는 총 5차례(2009·2010·2011·2012·2015년)의 메시다.

1956년 제정된 발롱도르는 유럽국가의 프로 클럽에서 활약하는 유럽국적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상됐다. 그러나 1995년부터 국제 제한을 폐지했고, 2007년부터 후보를 전 세계로 확대했다. 2010년부터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선정하다가 올해 9월 프랑스풋볼이 단독으로 시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FIFA는 단독으로 ‘올해의 선수’를 시상한다. FIFA 올해의 선수 시상식은 내년 1월로 예정됐다.

호날두는 올해 클럽이 참가한 각종 대회 55경기에 출전해 51골·17어시스트를 올렸다. 아르헨티나 국적인 경쟁자 메시(60경기 출전/56골·32도움)보다 개인기록에선 뒤졌다. 그러나 2015~201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결승전에선 우승을 결정짓는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섰다. 그뿐이 아니다. 올해 프랑스에서 개최된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에서 포르투갈이 사상 최초로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차지하는 데 앞장섰다. 비록 결승전 도중 부상을 입어 일찌감치 벤치로 물러났지만, 감독 못지않게 열정적인 움직임으로 조국의 우승에 기여했다. 그는 포르투갈대표팀 주장이기도 하다.

유럽 언론들은 “개인기록에선 메시가 좋았지만, 호날두가 올해 기념비적인 우승을 2차례나 달성하며 더 큰 지지를 받았다. 국가를 대표해서는 호날두가 더 큰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6면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최혜영 관공조 기자

삼한사온(三寒四溫)~ **철벽방어** 동계용 패딩점퍼 특가전!!
얇으며 강력해 라운딩시 편안함을 극대화 하는 점퍼! **2점 39,800원**



네이비

브라운

블랙

중간 유통구조를 제거해 거품 뺀 패딩 겨울이오면 서민들의 마음은 어느 때 보다 무겁다. 일은 해야 하는데 번듯하게 착용 할 만 한 점퍼 하나 구입하기 빠듯하다. 원프로톤사에서 거품 뺀 금액으로 판매하는 패딩점퍼로 어김없이 돌아온 겨울을 즐겨보자.

사이즈 95, 100, 105
판매가 2점 39,800원 (배송비 2,500원 소비자부담) 3점 59,000원 (무료배송)

입금계좌 <농협> 302-0851-6991-11 예금주 김주기(원프로톤)
홈페이지 www.OPTOP.co.kr 주문전화 1644-3606

HAN DOCK

40여전 전통의 (주)한독CnC
크로스오버 바지 기획특가전!
2점 49,800원



심플하고 견고한 버튼작

노턱 투웨이 스판

링클프리 가공원단

평상복, 근무복, 골프 및 아웃도어 활동복의 결정판 !!

활동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팬츠!

골프복, 평상복, 레포츠 등 활동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크로스 오버 팬츠는 노력의 투웨이 스판으로 뛰어난 신축성과 가볍지만 강도가 높고 마찰에 강하여 해짐이나 변형이 거의없다. 링클프리 가공으로 세탁후 다려 입는 귀찮음이 없다. 기능성 원단으로 하체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땀으로 인한 엉겨 붙음이 없는 장점을 가졌다.

안감기모 노턱스타일로 어떤 환경에도 최상!

평일 출근복 주말 아웃도어복으로 안심맞춤. 탄력성이 우수한 원사를 사용하여 신축성을 향상시켰으며 세탁및 장시간 착용시에도 뛰어난 형태 안정성을 유지한다. 동계용 기모안감 장작으로 야외활동시 따뜻하며 땀 흡수 후 빠르게 건조시켜 언제나 5분전에 입은듯한 착각이 들 정도의 상쾌함을 유지한다.

사이즈 30/32/34/36/38/40 사이즈 블랙/네이비/다크네이비
판매가 2점 49,800원(배송비 2,500원 소비자부담) 3점 74,000원(무료배송)
입금계좌 <농협> 302-0851-6991-11 예금주 김주기(원프로톤)
홈페이지 www.OPTOP.co.kr 주문전화 1644-3606